

2017년 5월 18일, 안덕면 광평리 박만희 씨 덕, 김승연 조사.  
박만희(여, 1934년생, 안덕면 광평리)

- 줄거리: 그순새는 까맣고 그순새가 다닐 때 땅에 엎드리지 않으면 쏠려 죽게 된다.

**[조사자]** 그순새 말 골아줍서.

**[제보자]** 그순새엥 허영 거멍흔게 텡여낫젠 헤여. 우린 모르는디 경 텡기민 땅이라도 딱  
업더저불지 아녀면은 그에 썰리민 죽넌, 경 헨 우리 헤낫수다게.

경은 헤낫는디 경 헨 아이덜끼리 앓아그네

“야, 거멍게 그순새 오라가민 엎드리지 않으면 죽넌.”

헤영 헤그네 골아나긴 헛인디, 그런 건 본디도 없고.

- 핵심어 : 그순새, 거멍흔 것, 땅, 죽음